

# “선제검사 시민 48만명... 1537명 조기발견 덕 진정세”

## 서울시 코로나19 브리핑

확진자 수 나흘 연속 100명대  
임시선별검사소, 거리두기 효과  
사망자 수, 감염경로 조사는 늘어  
5인 이상 사적모임 지속 자제 당부

서울에서 최근 나흘 연속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유지하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누그러진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선제 검사를 받은 시민들 덕이라고 분석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11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한 서울시민이 48만 명이다. 굉장히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했다”며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진된 1500명이 만약에 선제 검사를 하지 않고, 가족 간 혹은 집단 감염과 연결됐다면 서울시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이 11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이날 시에 따르면 임시 선별검사소 56곳에서 현재까지 총 48만5477건의 검사가 이뤄져 코로나19 환자 1537명이 조기에 발견됐다.

시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익명 검사를 도입하고 접근성을 높인 것도 확진자 감소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임시 선별검사소가 보건소 선별진료소보다 지리

적, 거리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검사 자체가 익명으로 진행돼 시민들이 검사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다”면서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한 검사가 여전히 필요하므로 시민들이 계속해서 검사에 참여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주(1월 3~9일) 서울에서는 하루 평균 236.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전주 일평균 340명보다

30.5% 줄었지만, 사망자와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례가 소폭 증가해 시는 시민들에게 17일까지 거리두기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 비율은 2주전 전체의 24.7%에서 지난주 29.4%로 4.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31명에서 39명으로 8명 늘었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코로나19 발생이 확진자간 접촉에 의한 전파로 여전히 일상 속 감염 사례가 많아 언제든지 집단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시민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종교시설에 모든 대면모임과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는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부터 받은 열방센터 방문자 중 서울에 주소지를 둔 283명에 대해 이달 5일 진단 검사 이행을 발령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기준 전체 283명의 33.9%인 96명이 검사를 완료했고, 5명이 양성 판정

을 받았다.

서울시 백운석 문화정책과장은 “미 검사자 169명 중 45명은 검사 예정이고 45명은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사유로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착신불가, 결번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인원은 79명”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8일 미검사자 169명에 2차 진단 검사 이행을 명령을 내렸다. 이날부터 시는 자치구, 경찰과 미검사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검사를 독려하고 부재 여부를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백운석 과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자는 고발 조치하겠다”며 “열방센터를 방문한 서울시민은 1월 15일까지 신속하게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10일 관내 종교시설 1300곳을 점검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교회 9곳을 적발했다. 위반 사유는 비대면 인원 초과(5개소), 대면 예배(2개소), 설교자 마스크 미착용(2개소)이었다. 시는 이들 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코로나시대 ‘랜선 독서’... 전자책 대출 꺾춤

## 서울도서관 대출건수 2.2배 증가 전자책·오디오북 등 콘텐츠 확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도서관에 직접 오지 않고도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PC로 인기도서와 신간을 바로 빌려볼 수 있도록 서울도서관이 온라인 콘텐츠 1만8000종을 신규로 업데이트했다.

서울도서관은 기존에 서비스하고 있는 1만여 종에 더해 온라인 콘텐츠를 약 3배로 늘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전자책 대출 건수가 전년 보다 갑절 이상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

도서관에 따르면 전자책 대출 건수는 2019년 8만8407건에서 지난해 19만4989건으로 2.2배 늘었다.

이에 서울도서관은 최신 도서와 국내·외 전자책 1만5000종, 전문 성우가 읽어주는 오디오북 3000종을 새롭게 콘텐츠 목록에 올렸다.

구독형 콘텐츠는 동시 접속자 수에 제한이 없고 신간도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소장형 콘텐츠는 동시 이용인원 제한이 있어서 이미 대출된 경우엔 예약을 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서울도서관은 2024년 5월까지 매년 신간과 인기도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또 기존 서울도서관 전자책 홈페이지와 뷰어 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서울도서관 온라인 콘텐츠 통합 플랫폼’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전자책·오디오북(구독형)은 1인당 5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울도서관 홈페이지나 앱에 로그인한 후 자료 검색 메뉴에 있는 ‘전자책 홈페이지’를 클릭해 ‘구독형 전자책’ 배너에서 검색하면 된다. 온라인 콘텐츠를 보려면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오른쪽 상단의 ‘비대면 자격확인’을 눌러 회원증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야외음악당에서 어린이들이 눈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스1

## 서울시 가상공간 디자이너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서울시는 가상공간 디자이너 양성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상공간 디자이너는 영화CG 제작, 건축 설계, 실내·외 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 전문화된 가상공간 기획자다. 신규 콘텐츠를 직접 개발해 창업하거나 VR 아티스트로도 활동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총 20명을 선발해 3주간 12회의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교육 과정은 현장에 필요한 실무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직접 짠다. 시는 교육 참여자에 수료증을 발급하고, 향후 관련 기업 면접 기회와 해외 실무자 일대일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 고양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車 전환 보조금 지원

고양시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달 11일 월요일부터 접수 순서로 총 70대를 선정해 1대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필증 주소지가 고양시로 등록된 경유자동차 또는 노후 LPG차를 폐차한 후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다. 9~15인승 소형합승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가 해당되며, 공동 소유자도 1인이 조건을 만족하면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는 특례조항이 신설돼, 2021년 말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기 위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서울시민 70% “따릉이 같은 공유활동 중요”

### “코로나 시대에도 자원 공유 필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유 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자원 공유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4~14일 서울시민 4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0년 공유도시 정책수요 발굴을 위한 인식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코로나 시대에도 서울시민의 70.3%는 공유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자원 공유가 필요한 이유는 불필요한 자원의 절약(39.1%),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28.3%), 공유를 통해 비용 지출 감축(21%), 사회구성원 간의 공동체 활성화(9%), 공유산업 육성을 위해(2.6%)를 들었다.

전체 응답자의 77.9%가 공유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공유사업 경험은 73.3%로 가장 많았다. 민간 공유서비스 경험은 43.2%, 무라노눔이나 자원봉사와 같은 자발적인 공유활동 경험은 40.7%로 집계됐다.

시민들이 인식하는 가장 활성화된 서울시 공유 사업은 따릉이(77.8%)였다. 공공 와이파이 서울(64.7%), 공공시설 개방(44.2%), 주차장 공유(42%)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의 ‘공유도시 정책’은 시민 78.2%가 인지하고 있었다. 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높음’(25.5%)이 ‘낮음’(20.6%)보다 4.9%포인트 높았다. ‘보통’은 53.9%였다. 어떤 사회·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지 묻는 문항에는 ‘도시 수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66.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7 | 해질 / 17:3

1월 12일 (화)  
음력: 11월 29일

수도권 날씨  
-7 ~ 2°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5/1, 동두천 -13/1, 가평 -14/-1, 양평 -12/1, 용인 -6/2, 평택 -9/3, 인천 -6/3, 수원 -6/2, 서울 -7/2, 파주 -14/1, 백령도 -2/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